

만남

2017 2월
통권 145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만남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하느님의 섭리를 찬미	4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61~163	8
기도 소개	기억해 주소서	11
나눔		12
공동체 소식		16
지방 공동체 소식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23
미사안내		24

《교황님의 2월 기도지향》

❖ 일반: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과 난민들과 소외된 이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환대와 위안을 찾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렬하고 따뜻한 인상을 남겼던 만남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처음 오스트리아 신학교에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주교님께서 외국에서 공부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셨을 때 감히 “아니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교님께서도 당연히 “예” 라는 대답을 기대하셨을 테니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기대 반 걱정 반의 양가감정을 지닌 채,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외국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4박 5일의 일정으로 대학생들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운이 좋아 뽐힌 적이 있어 참가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나름대로는 주일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져 성당을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물어 물어 성당을 찾아갔더니 거의 미사의 끝부분이어서 결국은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톨릭 신자가 소수인 일본에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성당을 찾아갔다는 그 노력만큼은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연수였습니다.

아무튼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여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처음 찾아가는 길, 게다가 독일어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영어는 더 더욱 안 되는 까닭에 누군가에게 묻는다는 것조차 망설여졌던 때였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라츠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탈 수 있을 만큼 눈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프랑크푸르트까지의 여정은 그런대로 불편함이 없었지만 그라츠로 가는 여정에는 온통 외국인들뿐이어서 ‘아, 정말 외국에 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라츠에 도착하니 선배님과 신학원 원장신부님께서 마중을 나오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신학교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선배님께서 인스부르크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라츠는 방학 동안 독일어 어학코스가 없는데 인스부르크에는 국제신학교가 있어 거기서 방학 중에도 독일어 어학코스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이미 신청을 해 둔 터라 짐을 풀지도 못한 채, 곧바로 인스부르크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6시간, 혼자서 하는 기차여행은 생각보다 지루하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인스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국제신학교에는 한국의 다른 교구에서 오신 신부님, 신학생들이 제법 계셨습니다. 저녁 즈음에 도착을 했는데 한국 신부, 신학생을 위한 공동체 방에서 환영 저녁식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식사가 성대하게 차려졌습니다. 신부님들과 신학생들이 참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식사를 보고 있노라니 감동이 물밀 듯 밀려왔습니다.

그 때, 한 신부님께서 회를 상추쌈에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신부님께서 “눈물 나제, 그렇게 눈물 나는 게 유학생활동이다. 앞으로는 눈물 없이 유학생활동을 할 수 있기 바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상추쌈 안에는 회뿐만 아니라 와사비가 잔뜩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온통 눈물 콧물을 쏟아냈지만 그 만남은 강렬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오스트리아의 유학생활동, 오스트리아 현지 사목,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로 올 수 있게 만든 만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강렬하고 따뜻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마음 포근해지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하느님의 섭리를 찬미(시편 33,1-9)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2번 “천지 생기기 전”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말씀과 함께 해 주소서.
- 주님!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한 분이 시편 제3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3, 1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울곤은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 2 비파로 주님을 찬송하며
열 줄 수금으로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 3 그분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환성과 함께 고운 가락 내어라.
- 4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분의 행적은 모두 진실하다.
- 5 그분은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자애가 땅에 가득하네.
- 6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

- 7 그분께서는 제방으로 모으듯 바닷물을 모으시고
대양을 곳집에다 넣으신다.
- 8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사는 이들이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 9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이네.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말씀’을 통하여 삶의 빛을 받은 체험을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을 통독했거나 필사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사는 이들이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이네.(33,8-9)

위의 시편 말씀을 읽으니 요한복음의 시작부분이 떠오릅니다.

“한 처음에 말씀(로고스)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요한 1,1),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1,3),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다.”(1,10)

앞의 성경 말씀에서 “생겨난 것 치고 말씀을 통하지 않은 것은 없다” (요한 1,3)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의 말씀으로 생겨났고,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신 하느님’ 이 온 우주의 그리고 ‘나’ 라는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따라서 하느님 자체이시기도 한 ‘말씀’ 이라는 고리를 통하여 하느님과 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이 하느님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바닷가에 나갔다. 아들이 물었다. ‘아빠, 바다의 끝은 어디에 있어?’ 아버지는 대답했다. ‘응, 저 수평선 너머 저 멀리에 있단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는 깨달았다. 바다의 끝은 저 너머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였다는 사실을.” 인간은 자신이 ‘바다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다 끝에 서서는 바다 끝이 저 바다 너머에 있다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존재라면(창세 1,26), 말씀이 인간의 중심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에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신명 30,14)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운수를 알기 위해 토정비결을 보거나 철학관을 찾지 마시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실천해 나간다면 올해 운수는 대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을 육화’해 내는 삶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원천이며, 존재의 이유가 되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풍요로운 한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8번 “주께 감사드리자”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준주성법 제 3 권

내적 위로에 대하여

교리161

제7장 은총을 겸손으로 감춤

3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바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따르려 한다면, 또 그런 생각을 고칠 마음이 없다면 그 장래는 몹시 위험해질 것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흔히 남의 지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를 몹시 싫어한다. 지식을 많이 쌓아 헛된 자만에 빠지는 것보다 아는 것은 별로 없어도 마음이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무엇을 많이 가져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게 가지는 것이 낫다. 자기의 사난 하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은총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지나치게 즐거워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또한 역경으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지나치게 실망한 나머지 나에게 의탁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나를 믿는 마음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 역시 덕성 있는 일이라 할 수 없다.

4 평화로울 때 지나치게 안심하고 있는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면 금세 두려움에 떨게 된다. 항상 겸손하고 자신하고 자신을 미천한 자로 여기며, 또 생각을 잘 조절하고 지배할 줄 알면, 쉽게 위험에 빠질 리가 없고 상처를 받을 리도 없을 것이다. 만일 하느님의 거룩한 빛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지를 경건한 마음이 있을 때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그 빛이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 그 거룩한 빛이 잠깐 없어진 것은 네게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며, 내게는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생각하라.

5 네 뜻대로 항상 잘 되어 가는 것보다는 자주 이런 시험이 생기는 것이 더 낫다. 어떤 환시를 많이 보거나, 천상적 위로를 많이 느끼거나, 성경을 잘 깨달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써 공로의 가치를 헤아려서는 안 된다. 참된 겸손에 뿌리를 두고,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항상 하느님의 영광만을 찾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진심으로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남에게 찬사를 듣는 것보다 천대를 받고 변변치 않게 여겨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써 공로의 가치를 헤아려야 한다.

교리162

제8장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전히 생각함

1 제자의 말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웁니다.” (창세 18,27) 제가 먼지보다, 재보다 저를 더 크게 헤아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즉시 이런 생각의 잘못을 밝혀 주시고, 제 최악도 이 사실의 참된 증거가 되어 나서리니 저는 반대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보고, 또 저를 위하는 마음이 없고 저를 먼지와 같이 보아야, 비로소 주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은총을 내려 주시고, 제 마음에 광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저를 위하는 마음이 미소하게나마 남아 있다면 저는 저의 허무한 구렁텅이에 영원토록 묻혀 버릴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게 현재 저의 처지가 어떠하며, 전에는 어떠하였으며, 어떤 이유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제가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그런 처지인 줄을 몰랐던 탓이옵니다. 주님께서 저를 버려두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힘이 아주 없어지고 말 것이나,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면 즉시 용기를 얻고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제 자신의 무게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주님께서 자애롭게 저를 품어 주시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2 이는 바로 당신 사랑의 작용이오니, 잘한 것이 없어도 저를 찾아 주시고, 여러 가지 긴급한 사정에 놓일 때에 돌보아 주시며, 큰 위험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또 무수한 재앙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과연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저 자신을 그릇되게 사랑하여 저를 잃었으나, 오직 당신 한 분만 찾고 온전히 당신만 사랑하여 저도 얻고 당신도 얻었으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를 더욱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 지극히 선하신 분, 당신께서 제게 하시는 일은 모두 저의 공로를 초월하는 것이며, 당신께서는 제가 감히 바라지도, 구하지도 못하는 것을 주시나이다.

교리163

제9장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인 하느님

1 **주님의 말씀** 아들(딸)아, 네가 참으로 복되려면, 내가 너의 가장 높고 마지막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와 피조물은 나쁜 데로 기울여지려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만일 네가 어떤 일에서든 나대신 자기 자신을 찾는다면 그 즉시 힘을 잃어 메마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네게 준 이는 나밖에 없으니, 너는 모든 것을 제일 먼저 내게로 돌려라. 모든 것이 무한한 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 근본인 내게로 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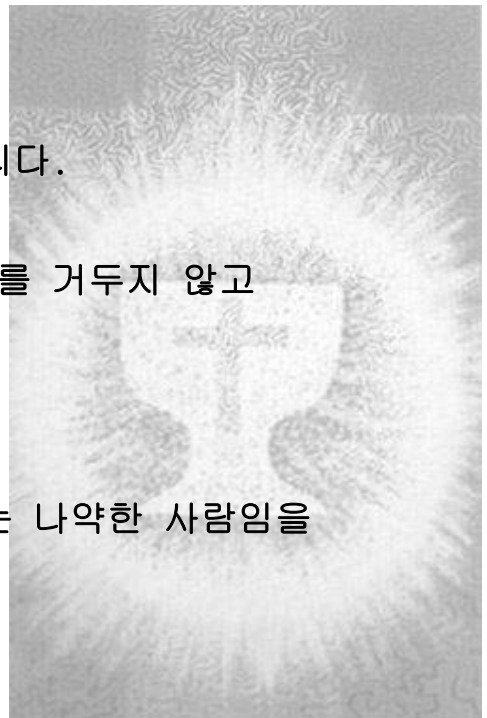
2 평범한 사람이든, 위대한 사람이든, 가난한 이든 부자든 똑같이 신선한 샘에서 물을 마시듯이 모든 사람이 내게서 생명의 물을 마신다. 나를 자유롭게, 그리고 기꺼이 섬기는 사람은 모든 은총 가운데 가장 좋은 은총을 받을 것이다. 나를 떠나 다른 곳에서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려는 사람은 영원히 참된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 마음에 결코 즐거움이 채워지지 못할 것이며,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온갖 역경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너에게 돌리지 말고, 또 어떤 덕이든 사람에게 돌리지도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돌려라. 하느님 없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가더라도, 너는 반드시 내게 감사해야만 한다.

3 이는 헛된 영광을 물리치는 진리다. 천상의 은총과 참다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떤 시기도 편협함도 없을 것이며, 사사로운 애정이 그 마음을 사로잡지도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영혼의 모든 힘을 끌어 모은다. 네가 진정으로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나 말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을 것이며, 나 말고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기’ (루카 18, 19 참조) 때문이다. 그분 홀로 모든 것 위에 찬미 받으실 분이시며, 그분 홀로 모든 일에서 존경받으실 분이시다.

미카엘 신부

기억해 주소서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건만
 당신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당신을 마주 본다면, 그리하여 당신의 깊고 그윽한 시선을 마주 한다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차라리 못 본 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곳곳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힘겨워 하는 사람들에게는 곁에 있어 주는 사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따스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으로,
 한없는 나락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으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동반자, 위로자, 격려자임을
 물결이 번져가듯 그렇게 잔잔하고 고요하게 제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않으렵니다.
 더 이상 시선을 외면하지도 않고 당신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떠한 손해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희생을 쏟아 부어야 한다 하더라도
 힘이 닿는 데까지 당신을 향한 길에서 멈추어 서지 않으렵니다.
 당신은 저의 희망입니다.
 당신은 저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위하여 투신하렵니다.
 때로는 상처로 얼룩진다 하더라도
 당신 역시 그랬듯이 끝까지 사람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렵니다.
 오직 하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저 또한 부족한 한 사람임을,
 그리하여 무엇보다 당신의 시선을 필요로 하는 나약한 사람임을
 당신은 잊지 마소서. 기억해 주소서.



산다는 것은

서정홍(안젤로)

지난해를 가만히 뒤돌아봅니다. 나라는 어지럽고 시끄러웠지만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 많습니다.

큰아들 녀석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1급 장애인 아가씨(영미)를 만나 혼인을 했습니다. 영미는 앞은 잘 보이지 않지만 어느 누구보다 마음이 착하고 생각이 바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환하게 웃으며 밝게 대합니다.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어 사치라고는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음식 한 가지라도 버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졌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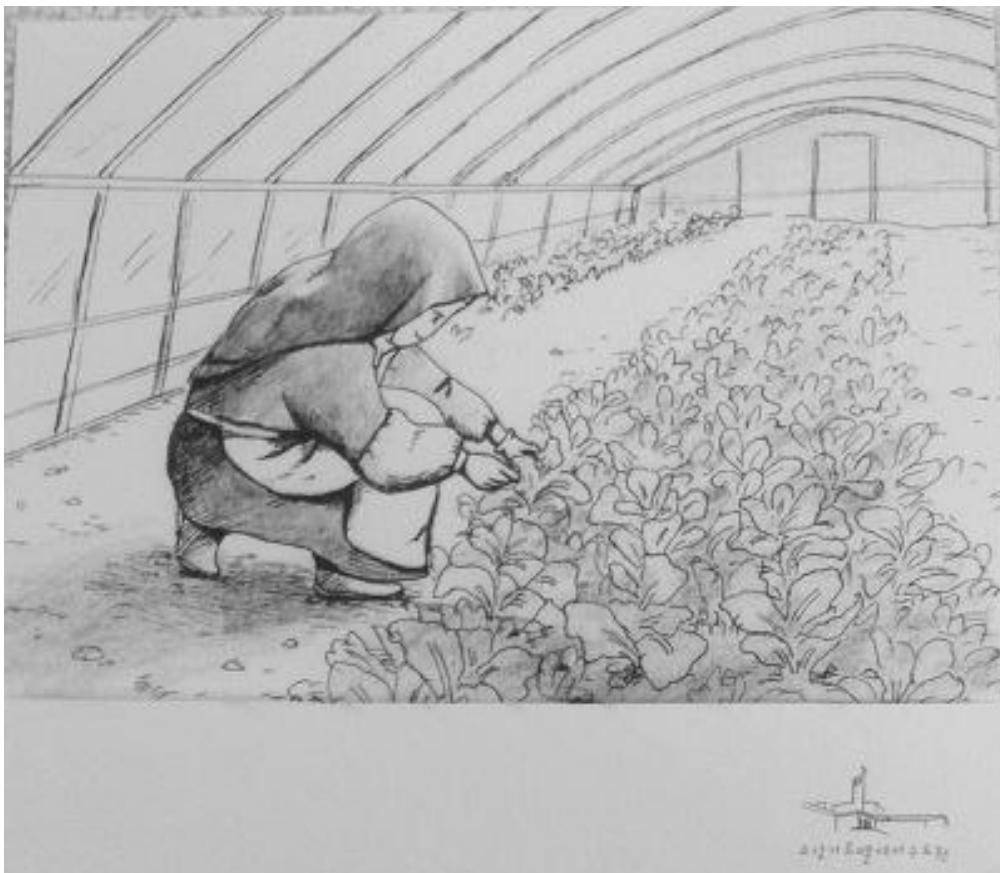
날이 갈수록 앞이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어찌 아기를 낳아 잘 기를 수 있겠느냐며 걱정하는 아내도 참 고맙습니다. 걱정을 한다는 것은 사랑이 넘쳐흐르기 때문이니깐요. 걱정이 태산 같은 아내를 보고 “어머니, 어머니도 저희들을 낳아 잘 길러 주셨잖아요. 어머니는 저희들을 기를 때 눈으로 길러 주신 게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길러 주셨잖아요. 그러니 믿고 지켜만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자식들 믿어 주는 거잖아요.” 라고 위로하던 작은아들 녀석도 참 고맙습니다. 혼인한 뒤에, 처음 맞이하는 어머니 생일은 꼭 선물해야 한다며 중고 스마트폰을 선물해 준 큰아들 녀석도 참 고맙습니다.

지난해를 가만히 뒤돌아봅니다. 나라는 어지럽고 시끄러웠지만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집 아궁이에 쌓아둔 장작에 불이 붙어 창문이 타고 방 안까지 불이 번져 온갖 마음고생을 다 했지만, 이웃들이 있어 잘 견뎌냈습니다. 화재 소식을 듣고 이웃들이 달려와 불을 끄고, 안방에 들어가서 그을린 벽과 장롱을 걸레로 닦고, 불에 탄 커튼과 창문을 뜯어내고, 우선 비바람을 막을 수 있게 비닐로 창문을 막아주었습니다. 만일, 양파 모종 상자에 씨앗을 넣고 있던 인화(미카엘) 씨가 소화기로 큰불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랫집 일산 어르신이 큰 통에 물을 가득 담아 와서 남은 불길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미리 소화기를 사 두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일이 분만 늦게 불길을 잡았더라면 올겨울 내내 한뼉잠을 잘 뻔했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모든 게, 모두 다, 고맙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잘 살 거라고 위로하던 이웃들과 벗들이 이불을 사 주고, 불에 탄 전등을 다 갈아 주고, 커튼을 손수 만들어 달아 주고, 집수리비에 쓰라고 돈도 모아 주고, 집수리하는 일꾼들 드시라고 막걸리도 사 주고, 자기 일처럼 멀리서 한걸음에 달려와 도울 게 없느냐고…….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 생각하니 머리가 저절로 숙어집니다. 산골 농부로 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있다면, 이웃들과 벗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작가 미상)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뜬구름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욕망만 따라 방향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생의 종국을 알고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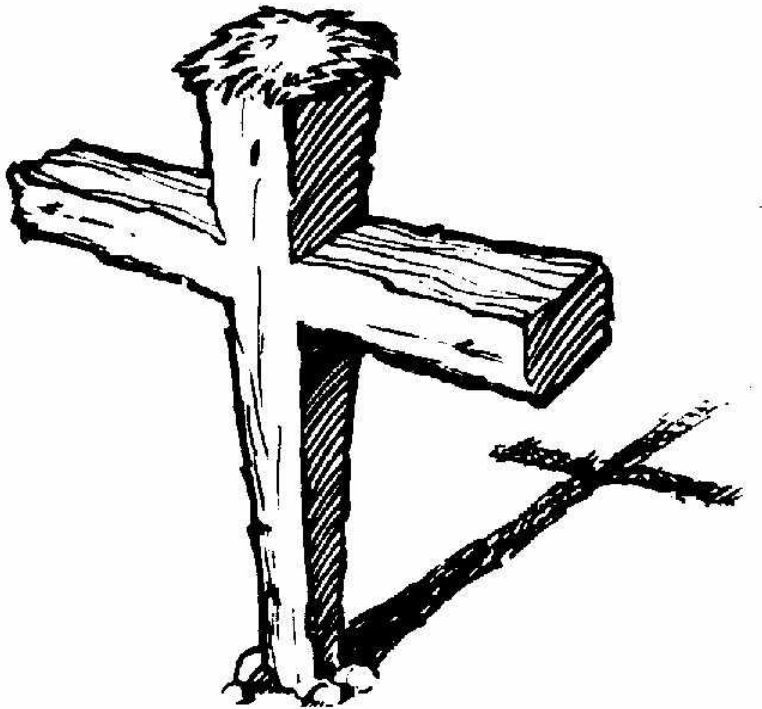
방향 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마음에 하느님을 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종국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옆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만 바라보겠다는 노아에게
 믿음의 창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멋대로 흘러가는 인생에는 바람과 구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문제가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되는 동력이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느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나무라도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꽃에 관심을 가지나
 하느님께서서는 열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냥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꽃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키십니다.

아름답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세속인이 아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느님만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향기를 가지고
이웃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 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안 스 카 (St. Aansgar)	이 경 규	10일	스콜라스티카 (St. Scholastica)	조 영 희
	블라시아 (Blaise)	이 희 자			
5일	아 가 다 (St. Aagatha)	문 경 영 정 순 화	16일	율리안나	안 지 영
			18일	마리아나 (St. Mariana)	한 말 조
			24일	마티아스 (St. Mathias)	이 도 영
7일	리 차 드 (St. Richard)	박 춘 실 Groensel	26일	이사벨 (St. Isabel)	이 다 윤

❖ 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일	요 안 나 (St. Joanna)	이계선(H)	5일	아 가 다 (St. Aagatha)	허운선(O) 정금선(B)
			9일	알렉산드	문지훈(H)
4일	요 안 나	이순자(H)	10일	스콜라스티카	이정자(H) 오윤숙(H)
			16일	율리안나	송윤아(H) 이경의(H)

❖ 2월 성가번호

2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5일	41	211	188	31
12일	28	214	163	69
19일	25	340	165	6
26일				

❖ 2월 미사 전례 봉사자 ❖

2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5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김형웅(야고보) 김정자(젼마)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곽케빈(요셉)	3구역
12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김잔디(아그네스) 윤예진(모니카)	주일학교 복사단	4구역
19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허선애(임마누엘라)	배성우(도밍고)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복사단	청년회
26일				요셉 마리아회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월 1일	1월 8일	1월 15일	1월 22일	
계(€)	301.89	226.28	231.90	210.49	

❖ 자진헌납금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월 22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헌금납부 :

한선지, 이석우, 우동천, 육종인, 진윤희, 김건, 김경미, 이현묵,
이중지, 이공중, 김형웅, 최승진, 배성우, 이정수, 문경희,
신옥희, 김기연조,

구좌입금 :

허두욱, 이명원, 김치수, 이상봉, 김수혜, 남궁 춘배, 곽케빈,
허길조, 홍경영, 영희 Eggerstedt, 김대현, 최현봉, 이성원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월 18일(수) 17:45에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던 최종태(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께서 한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진주지역 병원사목이라는 소임을 맡게 된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기원합니다.
2. 2월 넷째 주부터는 매월 넷째 주일에는 가족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가족미사는 한 가족 모두가 복사를 서고, 한 가족 모두가 독서와 보편지향기도를 담당하고, 한 가족 모두가 봉헌행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대자, 대모대녀, 그리고 친구들끼리 가족으로 등록하시면 전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례부장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자녀들의 영적 성화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또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청합니다.
4. 앞으로 축일을 맞으신 분과 성당에 처음 오신 분,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하러 오신 분은 주일미사 때 공동체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5. 올해 사순시기는 3월 1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진행되고, 단식과 금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지만 19시에 재의 수요일 예식을 봉헌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합시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달 첫째 주 토요일 15:00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 역 장 모 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윤 예 진 모 니 카	0157 5483 9145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현 영 애 헬 레 나	040/ 5480 1592 0176 6262 7429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셸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1 867 2858
			부회장	이 정 훈 요나스		0176 4345 233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반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2 월 중 행 사 예 정 표

함부르크 본당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수			
2	목	주님 봉헌 축일 봉헌 생활의 날	꾸리아	봉헌초 축성
3	금		복음 나누기 기도회	
4	토			브레멘 공동체
5	일	연중 제5주일	사목협의회	
6	월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7	화			
8	수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9	목			
10	금		2구역 소공동체	
11	토	세계 병자의 날		오스나브뤽 공동체
12	일	연중 제6주일	청년 소공동체	
13	월			
14	화	성 치릴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15	수	마산교구설정 51주년		
16	목			
17	금			
18	토	우수		하노버 공동체
19	일	연중 제7주일		
20	월			
21	화			
22	수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23	목	성 폴리카르포 주교 순교자	연령회	
24	금			
25	토			
26	일	연중 제8주일	가족미사 봉헌의 날	
27	월			
28	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 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원보 만 남 ❖

발행인	박철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편집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첫 째, 둘째 금요일 17시 30분(복음 나누기회, 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